

현재시점에서 바라본 해사계열대학의 제4군화 정책에 대한 연구

윤영준* · 박찬익*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항해학부 선박운항관리전공 2학년

요약 : 현재 해기사의 병역복무제도는 병역법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초급해기사들은 기존의 산업기능요원제도와 마찬가지로 4주간에 군사훈련을 마치고 승선근무에 투입된다. 그러나 이는 전시에 제4군으로써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며, 그 문제점과 더불어 앞으로 해사계열대학의 제4군화 정책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핵심용어 : 제4군,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개정, 해양력

1. 서 론

광복 후 제대로 된 상선 한 척조차도 없던 그 시절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제 6위에 해운국가가 되고 조선업 또한 부동의 1위로써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해기사”라는 밀거름이 있기에 가능했다. 해기사란 선박 내에서 선박운항을 책임지는 간부선원을 말하며 평시에는 국가의 부와 경제를 위해 상선대에서 근무를 하고,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는 군수물자와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를 실어 나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해기사는 거의 군인이나 다름이 없고 평시에서 전시나 비상시로 바뀌면, 별다른 훈련 없이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해기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는 강도 높은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중략)……

2.. 해사계열대학 졸업자들의 병역제도의 역사

해사계열 졸업자들의 병역제도는 한국해양대학교 제 8대 학장이었던 신성모 학장이 해군과 국방부에 건의하여 제정하게 된 해군예비원령으로부터 시작한다.(1958년 10월 7일, 대통령령 제1395호로 공포) 해군예비원령은 해운·수산계 대학에 입학과 동시에 해군군사훈련 실시 졸업 후 졸업생 총원이 해군 소위에 임관하고 일부는 현역으로 징집되어 복무를 대부분은 예비역의 신분으로써 2년간 승선근무를 하였다. ……(중략)……(한, 해양대학교 역사 - 50년대)

표1-1

제도명	시행기간	주요내용
해군예비원령	58.10.7~81.12.30	졸업 후 임관자 중 일부는 해군소집 나머지는 2년간 승선근무
해군예비역장교	81.12.31~89.12.29	해군 장교(부사관)임관자 외의 나머지 해군예비역으로 3년 승선 (5년 내)
산업기능요원	93.12.31~07.07.26	산업기능요원제도 신설 - 해양·수산분야 지정업체 선박에 3년간 승선

(병무청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bmjedo/bmjedo06/bmjedo061/index.html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편입 - 유사제도)

3. 현재의 해사계열대학과 제4군화 정책

1. 우수한 제4군을 육성을 위한 병역법 개정의 필요성

현재 해기인력의 병역제도는 2007년 07월 27일 자로 도입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통해 졸업 시 교육소집 후 3년간 승선근무를 하여 병역이행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정부가 “비전 2030 인적 자원 활용 2+5 전략”을 제시하였

는데, 기본적인 골자는 다음과 같다.

- ①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 ② 병역의 단순 이원화(군복무+사회복무), ③ 현역 복무기간의 단계적 단축, ④ 2012년 이후 전환복무, 대체복무의 폐지 등 이였다.

위 사항을 볼 때 우리나라의 제4군의 복무제도였던 수산, 해운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성향이 위에서 제시한 사항과 많이 달랐고, 정부는 해기사의 병역특례가 정상적인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해기사의 병역제도는 앞에서도 언급 했듯 제도적으로는 계속 변화여 왔지만, 공통적으로 정부가 상선대를 제4군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상선대에서 복무하는 것을 군 복무로 ……(중략)……(월간 해기 07년 5월호)

2. 현 시대의 알맞은 상선대의 제4군화를 위한 정책

해군예비원령과 해군예비역장교제도 등을 실시한 때와 달리 현재는 장교가 아닌 일반 사병으로서의 예비역신분으로 승선근무를 하고 또 입학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 맞는 제4군화 정책을 시행하려면 병역이행에 따른 재학생의 분류가 필요하다. 현재 해사계열대학의 학생들을 병역이행의 측면으로 분류해보면 여학생 및 외국인 교환학생, 그리고 선원건강진단을 충족하여 입학했으나, 징병검사 신체등위를 3급 미만으로 받은 남학생 또 선원건강진단을 충족하면서 징병검사 신체등위를 3급 이상으로 받은 남학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체등위 3급 미만은 현행법상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될 수 없음.) 이러한 학생들의 현황을 고려할 때, 반드시 분류된 4가지 형태의 학생들의 조건을 충족하고 전시에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필요하다는 (한국해양대학교 차오름 사관부 -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제안)……(중략)……

는 학사학위 수여를 인정하였으며 1956년에는 의회법에 따라 영구적 기관으로 (월간 해기 07년 5월호-국가경제·안보를 위한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건의)……(중략)……

2. 국가경제와 안보를 위한 제4군 강화의 필요성

우리나라 통일 이후 동북아 안보환경은 해양분쟁, 난민문제, 테러리즘, 해적의 위협, 등 포괄적 안보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중요하고 통일 후 국가 경제의 번성을 위해서 21세기 한국 해군과 상선대는 강력한 해양력을 키우기 위한 다음과 같은 계획 및 추진 필요하다.

- 국력에 걸맞은 원근해 독립작전 수행을 위한 전략기동함대의 구축
- 구축함급 이상의 전투함, 적정수의 잠수함, 해상작전 항공기, 기동 군수 지원함 등의 도입
- 강력한 상선대의 제4군화 정책 시행 필요 <미국의 경우 전시 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해운안보계획(Maritime Security Program: MSP)에 의해 해당 210만 달러씩 연간 총 1억달러를 지원> ……(중략)……(월간 해기 07년 5월호 -국가 선대 제4군화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의 정착, 김시화)

5. 결 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해양력이 곧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해양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라의 국방과 경제를 동시에 책임지는 해기사를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해양력의 성장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앞에서 계속 알아본바, 예전에 시행하였던 총원 학군무관후보생 즉, 해군예비원 제도를 앞에서 연구한 결과와 같이 수정 및 개정하여 승선근무예비역제도와 연계한다면 현재의 해사계열대학 재학생 ……(중략)……

4. 해양강국의 제4군화 정책 및 그에 따른 효과

1. 해양강국의 제4군화 정책의 시행방안

세계 최대의 해양강국인 미국의 제4군화 정책을 살펴 보면, 해군과 상선대(Merchant marine)를 국가 해양력의 양대축으로 삼아 상선대의 제4군화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미 연방상선대학(USMMA)은 1943년 9월에 4년제 정규대학으로 개교하였으나, 2차대전 당시 상선사관의 조속한 배출을 위해 교육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였고, 종전 시까지 6,634명의 상선사관을 배출하였으며 전쟁 중에는 재학생들도 전쟁지역의 해상근무에 투입되어 142명의 재학생 전사자들도 있었다. 전후인 1945년 8월에 4년제 교육과정으로 환원되었고 1949년 의회

참 고 문 헌

- [1]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클럽 -과거의 항적 , 50년대 , 원민석
- [2] 한국해양대학교 차오름 사관부 -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제안
- [3] 월간 해기 07년 5월호-국가경제·안보를 위한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건의 , p 22
- [4] 월간 해기 07년 5월호 -국가 선대 제4군화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의 정착 , 김시화 , p 30

* 교신처자 윤영준, yuyi3456@naver.com 010)2213-0426

* 박찬익, jagil_99@yahoo.co.kr 010)4185-9593